

국어영역(B⁺A형) 2016^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화법/작문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기출 수능 역추론

원리와 사고방법

& 유형문제



방법은 있다

표지 안쪽

수능 국어 2016^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화법/작문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 기출수능에서 역추론한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어휘를 선정 · 구별하는 방법 제시
- 교과서 배경지식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 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를 거쳐 현재 서초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언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차용택 선생님

서울 언남고, 신림고, 함양고를 거쳐 현재 진주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링크 실전편 집필 (공저, 천재교육 간행)

대한 교과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대한 교과서 간행)

독서 평설 집필 (공저, 지학사 간행)

블랙박스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문법/화법/작문 편

지은이 | 이성호, 차용택

이 책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 파일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 파일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능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언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 문이라. 그러니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 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 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언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 모아 보자고 의기투합한 것이 96년 가을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함께 근무한 1년 받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고, 근무지가 달라진 1년 동안에는 통신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모으고, 각자의 교실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면을 만들어 갔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 2판에 붙여

‘98년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입시 체제에 맞춰 **완전 개정 1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철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문법/화법/작문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또 **어휘를 선정·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지식적 측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이성호, 차용택 올림



차례

제1부 문법과 어문 규정

0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음운론	8
유형모의 16	
02. 형태론	20
유형모의 31	
03. 통사론	38
유형모의 51	
04. 담화의미 변화국어 생활	57
유형모의 65	
05. 국어의 변천사와 훈민정음	69
유형모의 79	
06. 어문 규정(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84
유형모의 108	

제2부 화법

화법 1. 교과서 배경지식

01. 화법의 본질	118
02. 화법의 원리	121
03. 화법의 실제	127

화법 2. 유형별 원리와 사고방법

01. 사실적 파악	136
유형모의 147	
02. 화제, 주제 파악	156
유형모의 160	
03. 전제, 논거와 주장	165
유형모의 171	
04. 제시되지 않은 내용의 추론과 새로운 판단 이끌어내기	175
유형모의 184	
05. 말하기의 특성과 비판·평가	196
유형모의 209	

제3부 작문

작문 1. 교과서 배경지식	226
작문 2. 유형별 원리와 사고방법	
01. 구상개요	230
유형모의 255	
02. 자료소재	270
유형모의 300	
03. 주제주제문	314
유형모의 326	
04. 요약	337
유형모의 341	
05. 머리말 쓰기	347
유형모의 350	
06. 본문 쓰기	355
유형모의 379	
07. 맺음말 쓰기	389
유형모의 394	
08. 단어의 선정	398
유형모의 425	
09. 문장 고치기	430
유형모의 444	
10. 문단 고치기	448
유형모의 460	

제4부 **방법은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문제가 끝난 다음 쪽에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해설과 정답**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가. 제부 문법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2 원리는 이렇다

3 방법은 있다

06 본문쓰기[예제]

5-2 머리말쓰기[유형모의]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계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 있다고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구상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고 답 찾기** 주제와 관련시켜 볼 때 ㉠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조사의 내용 중 '자전거 등 에너지 절약 수단'의 보급 현황이라는 항목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내용이지 대체 에너지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 **오답 비루기** ㉠ 유류 대체 에너지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적절하다. ㉡ 대체 에너지 개발은 정부의 관련 부처나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 인력과 관련된 일임으로 적절하다. ㉢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지 전개 방향이므로 적절하다. ㉣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비 지원 증대라는 내용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 나머지 대체 에너지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나. 제4부 방법은 있다고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항을 방법은 있다고 풀이하여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오답도 하나하나 풀이하였습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제1부

문법과 어문 규정



New Theory & Thinking Method



개념어·어휘·크리닉

•언어의 친교적 기능 :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
켜 주는 언어의 기능.

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문법의 4대 영역

① 언어의 본질

(1) 언어와 인간

언어는 인간의 삶 즉 사고, 사회문화와의 상호 작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언어와 사고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주장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③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한다는 주장

(3) 언어와 사회

- ① 언어는 친교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줌.
- ② 언어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됨.
- ③ 언어는 지역 사회나 언어를 사용하는 신분, 세대, 성별에 따라 다양성을 띤다.

(4) 언어와 문화

- ① 언어는 자체가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
- ② 언어는 문화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의 핵심이 됨.

② 언어의 특성

(1) 기호성

언어를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 함.

해설

‘나무’라는 언어는 ‘나무’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나무’ 자체를 대신 나타내는 기호이다.

(2) 자의성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의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 함.

해설

실제의 ‘나무’를 우리 언어로는 ‘나무’라고 표기하지만 다른 언어로는 木이라 하기도 하고 tree[tri:]라 하기도 한다. 이는 언어와 실제 나타내는 사물의 관계가 특정 언어의 언중이 제 마음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불역성(不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특정 개인이 ‘너무’라고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 이처럼 언어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4) 역사성

언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 나 표기, 의미 등이 바뀌는 가역성(可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중세 국어에서는 ‘나모’와, ‘남기’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나무’로 쓰고 있다.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을 끊어서, 즉 분절하여 표현하는 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우리는 흔히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으로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줄기’와 ‘가지’가 어디부터 나누어지는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언어로는 분명히 나누어서 표현한다.

(6) 규칙성

언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문법 단위에 적용되는 규칙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언어의 규칙성이라 함.

해설

사실적 표현으로 ‘나무가 된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된다’라는 서술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만 서술할 수 있다는 규칙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7) 추상성

언어의 의미는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데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라 함.

해설

‘나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무’의 속성을 생각해내야 한다. 사전에서는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무’가 ‘① 줄기와 가지가 목질로 되어 있다. ② 여러해살이이다. ③ 식물이다.’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추상화하여 ‘나무’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8) 창조성

언어는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있다’란 표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나무가 있다’란 표현도 할 수 있으며 ‘나무는 자라서 재목이 되고 재목은 우리의 집을 만들어주며……’ 등의 창조적 표현도 가능하다.



개념어·어휘·크리닉

*형태론은 품사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통사론은 구문론, 문장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③ 문법의 4대 영역

- (1) 음운론 : 음운이나 음운의 배합에 의한 음절의 구조를 연구
- (2) 형태론(품사론) : 단어 및 단어의 구조를 연구
- (3) 통사론(문장론, 구문론) : 문장 구조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
- (4) 담화론 : 문장의 연속체에서 다른 문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연구

예문 문법 분야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	연구 분야	비고
음운론적 분석	ㄱ+ㄴ, ㄱ+ㅏ ㄱ : 예사소리 피열음 ㄴ : 평순 모음 고모음 후 설 모음 ㅏ : 평순 모음 저모음 후 설 모음	ㅇ+ㅣ……	자음동화	음운 음운의 변동	
형태론적 분석	대명사+주격 조사	명사+목적격 조사 합성어	동사 ·읽+ 는 + 다 어간 + 현재 시제 보조 어간 + 평서형 종결 어미	형태소, 단어 의 종류 및 형 성 품사	
통사론적 분석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분, 문 장의 구조, 담 화	출문장
담화론적 분석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다른 문장과는 관계나 맥락 등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나 읽던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사실적 의미 외에 발화자의 경이로움이나 새로움 등의 의미를 첨가시킬 수 있다.				

2. 음운론

① 음운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곰’과 ‘놈’의 두 글자에서 뜻이 달라진 이유는 ㄱ과 ㄴ의 대치에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뜻을 구별하여 주는 음운에 해당한다. ‘눈’과 ‘늪’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ㄴ과 ㄴ̥가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음운에 해당한다.

(1) 분절 음운

① 자음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혀바닥	여린입천장, 혀 뒤	목청 사이
인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② 모음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ㅗ	ㅡ	ㅜ
중모음	ㅔ	ㅛ	ㅖ	ㅠ
저모음	ㅐ		ㅘ	

(2) 비분절 음운[운소] : 소리의 길이, 억양

예) 소리의 길이 - 눈:[雪], 눈[眼] / 말:[言], 말[馬, 𪛐]

예) 억양 - 잠 자. [잠 자] : 긍정. [잠 자] : 의문. [잠 자] : 명령.

② 음운의 변동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동 유형	명칭	개념	사례
교체 (대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밖 → [박] 잎 → [압]
	자음 비음화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국물 → [궁물] 밥물 → [밤물]
	동화 유음화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난로 → [날로] 칼날 → [칼랄]
	구개음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센입 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미달이 → [미다지] 피붙이 → [피부치]
	된소리되기	두 개의 안올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ㄲ, ㄸ, ㅃ, ㅆ, ㅉ’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잡+고 → [잡꼬] 젓+소 → [젓쏘] 신+고 → [신꼬]
탈락	자음 탈락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 이나 모음 앞에서 ‘ㅎ’이 소리 나지 않는 현상	울+시고 → [우시고] 쌀+이다 → [싸이다]
	모음 탈락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ㅏ, ㅑ, ㅓ’가 탈락하는 현상	가+아서 → [가서] 깨+어 → [깨] 살+으면 → [살면]
첨가	사잇소리 현상	- 두 단어가 합성어를 이룰 때 뒷단어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혹은 ‘ㄴ, ㄴ’이 덧나는 현상 - 복합어이면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ㄴ이 첨가되는 현상 ※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뿔간, 횃수	바다+가 → [바달까] 비+물 → [빈물] 뒤+일 → [뒤닐] 신여성 → [신녀성] 한여름 → [한녀름] 숨이불 → [숨니불]
축약	거센소리 되기	‘ㅂ, ㄷ, ㅅ, ㄱ’과 ‘ㅎ’이 만나 ‘ㅃ, ㄸ, ㅆ, ㅋ’이 되는 현상	좋다 → [조타] 입히다 → [이피다] 젓히다 → [저치다]
	음절 축약	‘ㅣ’와 ‘ㅣ’가 만나서 ‘ㅿ’로 바뀌거나 ‘ㄴ, ㄴ’ 가 ‘ㅏ, ㅑ’ 앞에서 ‘ㅓ, ㅕ’로 바뀌는 현상	맞추+어 → [맞춰] 오+아서 → [와서] 그리+어 → [그려]

01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펴]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 ‘살피+{어 → [살펴]’의 경우는 단모음 ‘ㅣ’와 ‘ㄴ’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 ‘ㄷ’이 된 예이고, ㉣ ‘배우+{어 → [배워]’의 경우는 단모음 ‘ㅜ’와 ‘ㄴ’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 ‘ㄹ’이 된 예이다.

● 오답 비루기 ㉡ ‘기+{어 → [기여]’의 경우는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된 예이다. 즉 단모음 ‘ㅣ’와 ‘ㄴ’ 사이에 반모음 [j]가 들어가 ‘ㄷ’이 ‘ㄷ’로 발음되는 예이다. ‘기+{어 → [겨]’라고 써야 ㉡의 예가 된다. ㉤ ‘나서+{어 → [나서]’는 단모음 ‘ㅣ’가 탈락하는 예이다.

✓ 예답 ③

02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빈],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뻘],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만형 → [마텝]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올바른 설명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바꾸는 변동이고, ㉡은 축약인데 ‘뜻’이 ‘뜰’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하고 ‘뜰’의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① ㉡은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은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④ 둘 다 동화가 아니다. ⑤ ㉡은 된소리되기이다.

✓ **해답** ③

03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밭’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블)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눈</th> </tr> <tr> <th>길게 발음할 때</th> <th>짧게 발음할 때</th> </tr> <tr> <td>눈이 펄펄 내린다.</td> <td>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r> </table>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펄펄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펄펄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의 구실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ㄱ)에서 초성, 중성, 종성 등이 바뀔 때 따라 뜻이 다른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ㄴ)에서 음의 장단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 음의 장단 등은 음운이며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음의 장단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③ (ㄱ)에서는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고 (ㄴ)에서는 관습적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서 바뀐 것이 아니다. ④ (ㄴ)에서는 뜻의 차이에 따라 음의 장단을 달리하는

것이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이 바뀐 것이지 감정과는 무관하다.

✓ **해답** ②

04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이형태 관계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형태는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형태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 ①의 광주에 왔다는 광주로 왔다는 의미이고 광주에서 왔다는 광주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② 둘 다 도구를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③ 둘 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④ 둘 다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⑤ 둘 다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 **해답** ①



01

유형모의

언어의 본질과 음운론

01 <보기>에서 제시하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동물의 언어는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우리말로 '희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이트(white)'라고 하기도 하고 '블랑(blanc)'이라고도 한다.

- | | |
|-------|-------|
| ① 역사성 | ② 사회성 |
| ③ 자의성 | ④ 분절성 |
| ⑤ 규칙성 | |

02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가)와 관련된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언어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어가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가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생겨난 언어는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언어와 결합하여 다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존재했던 사회나 사물, 현상 등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지칭하던 언어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나) '맥도날드 할머니' 권△△ 씨가 돌봐줄 가족 없이 석 달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에는 '김치녀의 최후'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거처도 없는 권 씨가 허영심 때문에 매일 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영자신문을 읽으며 과거의 '우아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격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2000년대 '된장녀'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김치녀'로 변화했다. 된장녀는 웬만한 한 끼 밥값에 해당하는 브랜드 커피를 즐겨 마시며 해외 명품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을 비하해 일컫는 말이다.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빗댄 김치녀라는 말은 본래 '명품을 밝히고 소비 활동의 대부분을 남자에게 의존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점차 한국 여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로 확대되고 있다.

- | | |
|-------|-------|
| ① 사회성 | ② 추상성 |
| ③ 자의성 | ④ 규칙성 |
| ⑤ 창조성 | |

03 다음 중 <보기>에서 제시한 자음과 모음을 다 활용하여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 보 기 |

자음 : ㉠ 파찰음 예사소리 ㉡ 파열음 거센소리

모음 : ㉢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 ㉣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

- ① 싫다
- ② 좋다
- ③ 앓다
- ④ 잣다
- ⑤ 젓다

04 <보기>를 읽고 서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잡지’를 [잡찌]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② ‘부엌’을 [부억]으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③ ‘닭아’를 [다라]으로 발음하는 것은 탈락의 예이다.
- ④ ‘학문’을 [항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첨가의 예이다.
- ⑤ ‘쌓고’를 [싸꼬]로 발음하는 것은 축약의 예이다.

05 ‘내복약’과 ‘나뭇잎’의 발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복약 ⇨ [내복낙] ⇨ [내봉낙]

㉠ ㉡

나뭇잎 ⇨ [나뭇입] ⇨ [나뭇닙] ⇨ [나뭇닙]

㉢ ㉣ ㉤

- ① ‘콩엿’을 발음할 때에는 ㉠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과 ㉣에서는 같은 음운인 ‘ㄴ’이 첨가되었다.
- ③ ㉡와 유사한 음운 변동의 예로는 ‘먹는’이 있다.
- ④ ㉡와 ㉤에서는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 ⑤ ㉢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0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ㄱ~ㅁ 중 ‘축약’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날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축약에는 ‘ㄴ,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ㅃ, ㅌ, ㅊ, ㅋ’이 되는 자음의 축약과 ‘그리어’가 ‘그려’로, ‘보아서’가 ‘봐서’로 되는 것처럼 두 모음이 축약되어 한 음절로 되는 모음의 축약이 있다.

| 보기 2 |

	어간	어미	표기	발음
ㄱ.	낳- +	-고 →	낳고	[나코]
ㄴ.	않- +	-아 →	않아	[아나]
ㄷ.	자- +	-어 →	저	[저]
ㄹ.	돌라- +	-어 →	돌려	[돌려]
ㅁ.	오- +	-아서 →	와서	[와서]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07 ‘음운의 대치’와 이에 대한 예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의 대치	예
①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히읇 → [히읇]
②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닫는다 → [단는다]
③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순례 → [술례]
④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센 입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젓히다 → [저치다]
⑤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ㅈ, ㅊ’이 ‘ㄱ, ㄷ, ㅂ, ㅈ, ㅊ’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막다 → [막따]



●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문법과 어문 규정 유형모의 01]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④			

01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각국의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가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자의성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언어가 변화한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연속적인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는 속성이다. ⑤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창조성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 속성이다. ③ 언어와 의미가 아무런 관련 없이 맺어진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3 ②

● 문항 분석 실제 발음상 제시된 음운이 다 실현되는 단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좋다'는 [조타]로 발음되는데, 'ㅈ'은 파찰음 예사소리이고 'ㄱ'은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이다. 또 'ㅌ'은 파열음 거센소리이며 'ㅏ'는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실타]의 'ㄹ'은 유음이다. ③ [안타]의 'ㄴ'은 비음이다. ④ [잔파]의 'ㅍ'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⑤ [절파]의 'ㅍ'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04 ④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학문'이 [항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화의 예이다.

● 오답 비루기 ① 'ㅈ'이 'ㅉ'으로 교체되었다. ② 'ㅋ'이 'ㄱ'으로 교체되었다. ③ 'ㅎ'이 탈락되었다. ⑤ 'ㅎ'과 'ㄱ'이 'ㅋ'으로 축약되었다.

05 ①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변동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서는 '약'이 [낙]으로 바뀌었으므로 'ㄴ' 첨가 현상이다. '콩알'도 [콩날]으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비루기 ② '복날'이 [봉날]으로 발음되고 '먹는'도 [멍는]으로 발음된다. ③ '뭇'이 [문]으로 바뀌었다. ④ '압'이 [납]으로 바뀌었다. ⑤ '문답'이 [문납]으로 바뀌었다.

06 ②

● 문항 분석 축약의 예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않아'는 [아나]로 발음되므로 'ㅎ'이 떨어져 나가는 탈락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었다. ③, ④ 둘 다 'ㄷ'과 'ㄱ'이 만나 'ㄱ'으로 축약되었다. ⑤ 'ㄱ'과 'ㅏ'가 만나 'ㄱㅏ'로 축약되었다.

07 ④

● 문항 분석 음운 대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젓하다'에서는 'ㅈ'이 'ㅎ'을 만나 'ㅈ'으로 발음되므로 축약이 일어난다.

● 오답 비루기 ①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었다. ②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발음된다. ③ 'ㄴ'이 'ㄹ' 앞에 와서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감다'는 끝자리가 'ㄹ'인 용언 어간에 안울림 예사소리 'ㄷ'이 만나 'ㄷ'이 된소리 '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① 형태소

‘익다’와 ‘읽다’의 경우 ‘익’과 ‘읽’에 의해 뜻이 구분된다. 이처럼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 한다.

(1) 형태소의 분류

구분 기준	명칭	개념	존재 양상	예
자립성 유무	자립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사과, 그, 하나, 그런 매우, 어머니
	의존 형태소	둘 이상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	동사형용사의 어간, 어미, 조사, 접사 등	먹-다, 예쁘-다, [네-]가 맨-[손], [뎌]-개
실질적 의미 유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형용사의 어간,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사과, 그, 하나, 먹-다, 예쁘-다, 그런 매우, 어머니
	형식 형태소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접사, 조사, 동사형용사의 어미 등	맨-[손], [뎌]-개, [네-]가 먹-다, 예쁘-다

(2) 이형태 : 동일한 형태소이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

① 음운론적 이형태 : 동일한 형태소가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소

예.보.기

이/가, 을/를, 과/와, -았-/—었-

② 형태론적 이형태 : 음운론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이형태

예.보.기

-었-/—었-, -어라/-여라/-거라/너라

② 단어

‘철수가 책을 읽다.’란 문장에서 ‘철수, 책’ 등과 같이 자립 형태소나 ‘가, 을’과 같이 자립 형태소에 붙으면서 쉽게 분리되는 말과 동사형용사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어절을 단어로 한다.

③ 단어의 형성법

(1) 파생어 :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①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예.보.기

맨- : 맨손, 맨발 들- : 들볶다 시- : 시퍼렇다

②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예.보.기

-님 : 선생님, 사장님 -개 : 덮개 -히 : 먹히다

(2) 합성어 :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① 단어의 배열법에 따른 분류

통사적 합성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르는 합성어	㉠ 돌부처, 집안, 큰집, 천지(天地), 마소, 걸어가다, 재미있다
비통사적 합성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르지 않는 합성어	㉡ 꺾쇠, 접칼, 누비옷, 굶주리다, 날뛰다, 오르내리다, 검푸르다, 높푸르다, 척척박사, 부슬비

②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대등 합성어	앞 뒤 성분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합성어	㉢ 남녀, 앞뒤, 부모, 형제, 마소, 두셋
종속 합성어	앞 성분이 뒤 성분을 수식하는 합성어	㉣ 돌다리, 비빔밥, 호두과자, 꽃게, 책상다리, 봄비
융합 합성어	앞 뒤 성분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합성어	㉤ 돌아가다 ⇨ 죽다, 밤낮 ⇨ 늘, 춘추 ⇨ 나이

4 품사의 분류

(1) 체언 :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오는 말

① 명사 :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사용 범위	보통 명사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명사	㉠ 가방, 신발
	고유 명사	특정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쓰이는 명사	㉡ 대한민국, 광화문
자립성 유무	자립 명사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 하늘, 구름
	의존 명사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 것 바

② 대명사 :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단어

지시 대명사	㉠ 이것, 저것, 그것, 무엇, 여기, 저기, 거기, 어디	
인칭 대명사	1인칭	㉡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짐(朕)
	2인칭	㉢ 너, 자네, 너희, 당신, 그대, 여러분
	3인칭	㉣ 그, 이분, 저분, 그분, 이이, 저이, 그이
	미지칭	㉤ 누구
	부정칭	㉥ 아무
	재귀칭	㉦ 저, 저희, 자기, 당신



- 미지칭 :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묻는 인칭.
- 부정칭 :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 재귀칭 :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③ 수사 :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

양수사	수량을 나타냄	㉠ 하나, 둘, 셋, 한둘, 두세, 서넛, 일 이, 삼, 천, 만
서수사	순서를 나타냄	㉡ 첫째, 둘째, 셋째, 제일, 제이, 제삼

개념어·어휘·크리닉

•품사의 분류

형태	갈래	
불 변 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가 변 어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서술격 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2) 용언 :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말

① 동사 :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자동사	움직임이 그 주어에만 관련됨	㉠ 가다, 놀다, 살다
타동사	움직임이 다른 대상과 관련됨	㉡ 먹다, 보다, 잡다

② 형용사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성상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 달다, 쓰다, 예쁘다, 밍다
지시 형용사	지시성을 나타냄	㉣ 이리하다, 저리하다, 그리하다

③ 용언의 활용 :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것

•어간 :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고정된 부분

•어미 : 어간 뒤에 붙어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

어말 어미	종결 어미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미	㉤ -다, -느냐, -구나
	연결 어미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	㉥ -고, -(으)며, -(으)나
	전성 어미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 -기, -(으)고, -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붙는 어미	㉧ -사-, -었-, -겠-

④ 불규칙 활용 용언 : 어간이나 어미가 모습을 달리하여 활용하는 용언.

구분	개념	용례
ㄷ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용언.	듣- + -어 → 들어, 깨달- + -어 → 깨달아
ㅂ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ㅂ'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ㅇ'으로 변하는 용언.	돕- + -아 → 도와, 무겁- + -어 → 무거워
ㅅ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ㅅ'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	잇 + -어 → 이어, 낫 + -아 → 나아
ㄹ불규칙용언	어미의 '-아/-어'를 '-라/-려'로 바꾸고 어간말음 'ㅇ'가 탈락하는 용언.	흐르 + -어 → 흘러, 부르 + -어 → 불러
ㄴ불규칙용언	'어'로 시작되는 어미들에서 '어' 대신 '려'를 사용하는 용언.	이리(至) + -어 → 이리려, 푸르 + -어 → 푸르려
ㅇ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ㅇ'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	푸 + -어 → 퍼
ㅎ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ㅎ'이 'ㄴ, ㄹ, ㅁ, ㅂ, ㅅ'의 자음 앞이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	노랑 + -아서 → 노래서 파랑 + 시 + 어 → 파랗시어
ㅇ불규칙용언	모음 '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어' 대신 '여'를 사용하는 용언.	공부하 + 어 → 공부하여
ㄱ불규칙용언	명령형 어미 '이라' 대신 '거라'를 사용하는 용언.	가 + -이라 → 가거라
ㄴ불규칙용언	명령형 어미 '이라' 대신 '너라'를 사용하는 용언.	오 + -이라 → 오너라

(3) 수식언 :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말

① 관형사 : 체언 앞에 놓여서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

지시 관형사	어떤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킴	예 이런, 저런, 그런 이 사람, 저 사람
성상 관형사	사물의 모양,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예 새 옷, 흰 신발, 순 우리말, 다른 사람
수 관형사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냄	예 한 사람, 둘째 딸, 제삼 회

② 부사 : 주로 용언이나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단어

성분 부사	문장의 어느 한 부분만을 수식함	예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함	예 제발, 그 음악은 듣지 마세요.
접속 부사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줌.	예 책을 읽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셨다.

(4) 관계언 : 앞말이 그 문장의 다른 말에 대해 갖는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말

① 격조사 :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가진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예.보.기

•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동생은 매우 기뻐했다.

주격 조사 보격 조사 목적격 조사

• 그것은 언제나 나의 희망의 대상이다.

관형격 조사 서술격 조사

• 철수야, 영호에게 가 봐.

호격 조사 부사격 조사

② 접속 조사 :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예.보.기

밤과 배와 사과를 샀다.

접속 조사

③ 보조사 :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예.보.기

철수만 우등상을 탔다. 철수도 우등상을 탔다.

(오직)

(역시)

신부가 손은 예쁘다.

(대조)

(5) 독립언 :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이 있는 말로, 감탄사가 여기에 속한다.

• 감탄사 :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

예.보.기

아, 오, 야, 아이고, 아뿔싸, 이키, 흥, 영차, 애게, 앓아라, 예, 여보셔요, 뭐, 구구, 글썸, 왜, 아니.

01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나)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가)에서와 같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 어제 뭐 했니?
B :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 ② ㉠ [A : 너 아까 집에 없더라.
B :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 ③ ㉡ [A : 감기 걸렸다면?
B :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잠겼어.
- ④ ㉡ [A :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 아주 나뻤어.
- ⑤ ㉢ [A : 너 오늘도 바빠?
B :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선어말 어미 ‘-았/-었-’의 용법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대로 정답 찾기 ‘A :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 아주 나뻤어.’라는 대화에서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은 둘 다 과거를 나타내므로 ㉠의 예가 된다.

● 오답 바꾸기 ① A의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 ‘어제’라는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② A의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 ‘아까’라는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③ B의 ‘아직도’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⑤ B의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라는 말에서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밤’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④

0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조]

- ①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②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조]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예'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예 [2]'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 [3]'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예 [1] ①'의 용례에 쓰인 '예'는 '에서'로 바꿔 쓸 수 없군.
- ⑤ '예 [1] ②'의 용례에 쓰인 '예'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조사의 쓰임이 잘못 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옳다로 정답 찾기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문장에서 '학교에서'는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이다. 서술어가 '한다'이고 이에 대한 주어는 '사람들이'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예'는 [2]에 접속 조사로 쓰인다고 나와 있지만 '에서'는 격 조사로만 표시되어 있다. ②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밥에', '국에', '떡에'라는 성분은 그 자격이 같다. ④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라는 문장을 '동생은 지금 집에서 없다.'라고 고치면 어법에 어긋난다. ⑤ '형은 방금 집에 왔다.'라는 문장을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라고 고치면 뒷 문장은 '형은 방금 집으로부터 왔다.'란 의미가 되어 그 뜻이 달라진다.

✓ 예 답 ③

0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 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단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양 분석 지시어의 용법을 잘못 파악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론 있디로 정답 찾기 ㉣의 '저희'는 선생님의 '아이들'을 지시하는 말로 3인칭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① ㉠은 '손에 들고 있는 그거'에 해당한다. ② ㉡은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와 관련되므로 적절하다. ③ ㉢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 3인칭 극존칭에 해당한다. ④ ㉣은 '우리 집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청자인 학생을 포함하지 않는다.

✓ 매 답 ⑤

04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지기 :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꾸러기 :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장이 :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접미사를 적절하게 활용한 단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한과장이’는 ‘한과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라 했는데 이는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과 유사한 의미가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유행지기는 ‘유행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므로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과 다르다. ② 산꾸러기는 ‘산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이란 뜻이므로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과 다르다. ③ 노래꾸러기는 ‘노래가 심하거나 많은 사람’이란 뜻이므로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과 다르다. ④ 농담장은 ‘농담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므로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다르다.

✓ **해답** ⑤

05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공연을 서서 보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가 된다.

단어	예문	반의어
빼다	주차장에서 차를 뺐다.	대다
	(가)	넣다
	적금을 빼서 빚을 갚았다.	(나)

	(가)	(나)
①	풍선에서 바람을 뺐다.	꽃다
②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뺐다.	더하다
③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찾다
④	새집 냄새를 뺐다.	박다
⑤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뺐다.	들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단어의 의미적 반의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넣다의 반의어는 빼다이므로 (가)의 예문으로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뺐다.’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예문의 뺐다는 뽑았다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적금을 빼서 빚을 갚았다.’라는 문장에서 빼다는 해약하란 의미인데 이의 반의어는 ‘가입하다’이다. 들다는 가입하단의 동의어이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에서 풀이한 내용과 어긋난다.

✓ **해답** ⑤

06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 *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 / *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 / *상냥하자 차분하다.
-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 / *먹자 공부해라. / 공부하자. / 공부할래?
-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미의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ㄱ, ㄴ과 ㅁ을 보면 ‘-(으)면서’는 다양한 문장 유형 즉 평서형(불렀다), 명령형(공부해라), 청유형(공부하자), 의문형(공부할래?) 등으로 쓰임을 보여주나 ‘-자’는 평서형(불렀다)에 쓰일 수 있으나 명령형(공부해라), 청유형(공부하자), 의문형(공부할래?) 등으로 쓰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치면서’, ‘나서자’는 현재형으로 문법에 맞다고 하였고 ‘나섰자’, ‘쳤으면서’ 등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들어간 과거형으로 문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③ ㄴ에서 ‘-자’로 연결된 문장의 앞문장의 주어는 ‘동수가’이고 뒷문장의 주어는 ‘비가’이므로 서로 주어가 다르고 문법에 맞다고 하였다. ㄷ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는 ‘동수가’인데 문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④ ㄹ에서 ‘동수는 상냥하면서 차분하다.’는 문법에 맞다고 하였고 ‘동수는 상냥하자 차분하다.’는 문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⑤ ㅂ의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라는 구절은 부정 표현과 어울려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 동시의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 **해답** ②

07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건설 + -되다¹ → 건설되다
 발견 + -되다¹ → 발견되다
 평가 + -되다¹ → 평가되다
 처리 + -되다¹ → 처리되다

(용례)

·다리가 건설되었다.

·유물이 발견되었다.

못 + -되다² → 못되다

참 + -되다² → 참되다

막 + -되다² → 막되다

영광 + -되다² → 영광되다

(용례)

·못된 장난을 치다니.

·영광된 자리에 서다.

- ① ‘-되다’는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²’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²’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는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²’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는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²’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접미사의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되다’는 ‘건설되었다’에서 보듯 ‘스스로 이루어지다’란 의미를, ‘-되다²’는 ‘영광된’에서 보듯 ‘그런 상황의’란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다.

● **오답 바꾸기** ① ‘건설되다’, ‘평가되다’ 등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참’은 명사이고 ‘못’은 부사이므로 적절하다. ③ ‘건설, 발견’ 등은 명사이고 여기에 ‘-되다’가 붙으면 동사가 된다. 또 ‘못되다, 참되다’ 등은 형용사이므로 적절하다. ④ ‘평가, 처리’ 등은 동작성이 있는 명사이고 ‘막, 영광’ 등은 동작성이 없으므로 적절하다.

✓ **매 답** ⑤

08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그는 손으로 방문을 세계 밀었다.(⇨밀쳤다)
- 어제는 서쪽 하늘이 몹시 불었다.(⇨불디불었다)

- ① 그 집은 매우 크다.(⇨커다랗다)
- ② 그는 건강을 다시 찾았다.(⇨되찾았다)
- ③ 그는 남의 말을 몰래 들었다.(⇨엿들었다)
- ④ 그는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뒀다.(⇨헛디뒀다)
- ⑤ 그는 오늘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싸움질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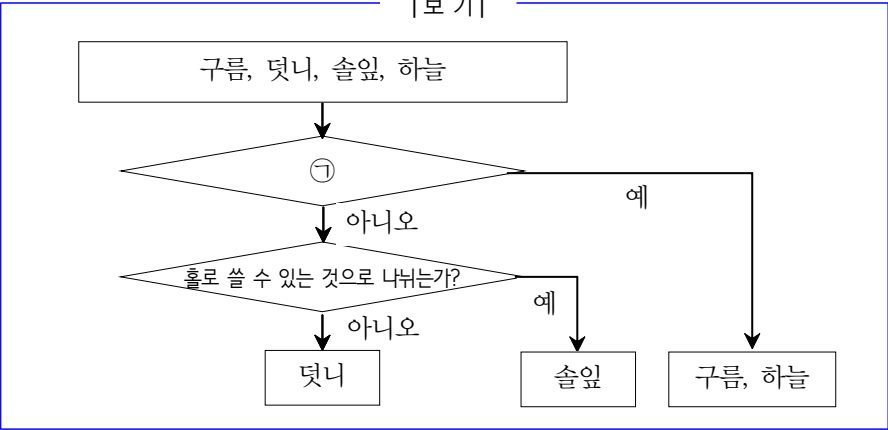
● **문항 분석** 두 단어를 유사한 의미를 지닌 한 단어로 잘못 고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심하게 싸우다'란 뜻을 지닌 한 단어는 없다. '싸움질'에서 '-질'은 접미사로 '짓'의 의미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접미사 '-다랗다'가 의미를 '크다'란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② 접두사 '되-'에 '다시'란 의미가 들어 있다. ③ 접두사 '엿-'에 '몰래'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④ 접두사 '헛-'에 '잘못'이란 의미가 들어 있다.

✓ **해답** ⑤

01 <보기>는 단어의 분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단어의 분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가?

②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가?

③ 고유어로만 만들어진 것인가?

④ 뒤 성분이 앞 성분에 대해 종속적인가?

⑤ 하나의 직접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02 불규칙 용언에 대해 <보기>와 같이 조사해 보았다.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구분	개념	용례
㉠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ㄷ’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 로 변하는 용언	듣- + -어 → 들어, 깨닫- + -어 → 깨달아 (㉠)
㉡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ㄴ’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ㅇ/우’ 로 변하는 용언	돕- + -아 → 도와, 무겁- + -어 → 무거워 (㉡)
㉢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ㅅ’ 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	잇 + -어 → 이어, 낫 + -아 → 나아 (㉢)
㉣불규칙용언	어미의 ‘-아/-어’ 를 ‘-라/-려’ 로 바꾸고 어간말음 ‘ㅇ’ 가 탈락하는 용언	흐르 + -어 → 흘러 (㉣)
㉤불규칙용언	‘어’ 로 시작되는 어미들에서 ‘여’ 대신 ‘려’ 를 사용하는 용언	푸르 + -어 → 푸르려 (㉤)

- ① ㉠ : 신- + -어 → 실어

② ㉡ : 사랑스럽- + -어 → 사랑스러워

③ ㉢ : 짓- + -어 → 지어

④ ㉣ : 사르- + -어 → 살려

⑤ ㉤ : 들르- + -어 → 들러

03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품사의 통용’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단어 가운데는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품사의 통용(通 용)이라고 한다.

[예문 보기]

- (가)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땀 수 있다. <조사>
 (나) 그 애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수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다)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어디 가겠단 말이나. <감탄사>

- ① [] 네 뜻대로 하렴.
 [] 본 대로 말하겠습니다.
 ② [] 바람이 부나 보다.
 [] 밤늦도록 그림책을 보다.
 ③ [] 한 평생 편할 날이 없다.
 [] 평생을 바쳐 봉사하였다.
 ④ [] 사람 다섯이 모여 들었다.
 [] 다섯 사람이 함께 일했다.
 ⑤ [] 오늘은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는 날이다.
 [] 오늘 우리는 위대한 창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04 <보기>는 사전에서 ‘지다’의 의미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다¹ [동사]

1. 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
2. 꽃이나 잎 따위가 시들어 떨어지다.
3. 묻었거나 붙어 있던 것이 닳아거나 씻겨 없어지다.

지다² [동사]

1.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상대방에게 꺾이다.
2. 어떤 요구에 대하여 마지못해 양보하거나 들어준다.

지다³ [동사]

1.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2. 어떤 좋지 아니한 관계가 되다.

[보조동사]

1. 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내는 말.
2. 앞말이 뜻하는 대로 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

지다⁴ [동사]

1. 물건을 짊어서 등에 얹다.
2. 무엇을 뒤쪽에 두다.
3. 줄이나 포승 따위에 묶이다.

- ① ‘지다¹’, ‘지다²’, ‘지다³’, ‘지다⁴’가 별개의 표제어로 서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이다.
- ② ‘지다¹’의 뜻으로 사용한 예문으로 ‘옷에 얼룩이 저서 걱정이네.’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 ③ ‘지다²’의 유의어로는 ‘패하다’가 있다.
- ④ ‘지다³’의 뜻으로 사용한 예문으로 ‘서산에 노을이 지다.’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 ⑤ ‘지다⁴’의 반의어로 ‘벗다’가 있다.

05 다음 중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파생 접사는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가 있다.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 의미를 더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데, 접두사와 달리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장독을 덮개로 덮어라.
- ②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어 보렴.
- ③ 요즈음은 벌이가 시원치 않다.
- ④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 ⑤ 멋진 그림을 바가지에 새겨 넣었다.

06 다음 밑줄 친 말 중, <보기>의 ㉠과 같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경우가 아닌 것은?

| 보 기 |

- 본용언 :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
- 보조 용언 : 다른 말에 기대어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용언
- 예 나는 밥을 다 ㉠먹어 버렸다.

- ① 길에서 우연히 그와 만나게 되었다.
- ②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대학에 가야겠다.
- ③ 그 책을 읽은 감상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 ④ 쓰레기는 한꺼번에 모아 버리는 것이 좋다.
- ⑤ 그 순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07 <보기>는 사전에서 찾은 파생 접사 ‘-히-’의 기능이다. 다음 중 [다]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히- : 접사

[가]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굳히다 / 굽히다 / 젖히다

[나]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닫히다 / 뽑히다 / 얹히다

[다]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붉히다 / 넓히다

- ① 오래 묵힌 김치로 찌개를 만들면 맛이 정말 좋다.
- ② 집단 따돌림 등으로 친구들을 괴롭히면 벌을 받는다.
- ③ 어제는 길이 막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했다.
- ④ 가을날 새벽녘에 들길로 나가 보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다.
- ⑤ 도시의 가게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행인들의 발길도 끊어진다.



●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문법과 어문 규정 유형모의 02]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②			

01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단어의 형성 원리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구름, 덧니, 솔잎, 하늘’의 네 단어 중 ‘덧니, 솔잎’은 두 개 형태소로 되어있고 ‘구름, 하늘’은 하나의 형태소로 되어있다. 또 형태소는 ‘하나의 직접 구성 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다.

● 오답 배리기 ① 모두 다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이다. ② 모두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③ 모두 고유어이다. ④ ‘덧니’는 파생어이고 ‘솔잎’은 앞 성분 뒤 성분에 종속적인 합성어이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불규칙 원리에 어긋나는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서 ‘들르어’가 ‘들러’가 된 것은 ‘어’ 대신 ‘러’가 온 것이 아니고 ‘ㄴ’이 떨어져 나가고 ‘니’가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ㄴ’ 탈락으로 불규칙이 아니라 음운 규칙에 해당한다.

● 오답 배리기 ㉡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뀌었다. ㉢ ‘ㅂ’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우’로 바뀌었다. ㉣ ‘ㅅ’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다. ㉤ 어미의 ‘-어’가 ‘-러’로 바뀌고 어간말음 ‘ㅇ’이 탈락되었다.

03 ③

● 문항 분석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③의 첫 문장의 ‘평생’은 관형사 ‘한’의 수식을 받고 있어 명사이며 둘째 문장의 ‘평생’은 조사 ‘-을’이 결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 오답 배리기 ① ‘뜻대로’의 ‘대로’는 조사 ‘본 대로’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② ‘부나 보다’의 ‘보다’는 보조 형용사 ‘그림책을 보다’의 ‘보다’는 동사이다. ④ ‘사람 다섯’의 ‘다섯’은 수사이고, ‘다섯 사람’의 ‘다섯’은 수 관형사이다. ⑤ ‘오늘은’의 ‘오늘’은 명사 ‘오늘 우리는’의 ‘오늘’은 부사이다.

04 ②

● 문항 분석 동음이의어의 의미나 용례가 잘못된 것을 알아

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옷에 얼룩이 져서 걱정이네.’라는 문장에서 ‘저서’는 ‘지다’³ [동사] 1.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배리기 ① 사전에서 별개의 표제어로 제시하는 경우는 동음이의어를 나타낸다. ③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상대방에게 꺾이다.’란 의미가 있으므로 패배하다 등이 유의어가 된다. ④ ‘지다’³의 뜻에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란 의미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벗다’는 ‘지다’⁴의 ‘물건을 짊어서 등에 엮다.’란 뜻의 반의어이다.

05 ⑤

● 문항 분석 접미사가 품사를 파생시킨 경우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바가지’는 ‘박’에 접미사 ‘-아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나 둘 다 품사는 명사이다.

● 오답 배리기 ① ‘뒹다’란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되었다. ② ‘낮다’란 형용사에서 동사로 파생되었다. ③ ‘벌다’란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되었다. ④ ‘맞다’란 동사에서 부사로 파생되었다.

06 ④

● 문항 분석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쓰레기는 한꺼번에 모아 버리는 것이 좋다.’란 문장에서 ‘모아’도 본동사이고 ‘버리는’도 본동사이다.

● 오답 배리기 ①, ②, ③, ⑤ 앞 용언 다음에 ‘-가지고’란 말을 붙여 뒤 용언을 연결시켰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버렸다.’란 문장은 성립하지만 ‘그와 만나가지고 되었다’란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07 ②

● 문항 분석 접미사 ‘-히’의 용법에 적절한 문장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괴롭히다’에서 ‘괴롭다’는 형용사이고 ‘친구들을 괴롭히만’은 ‘친구들을 괴롭게 만들만’이란 의미이므로 사동의 뜻이 들어있다.

● 오답 배리기 ① ‘묵히다’에서 ‘묵다’는 동사이고 ‘오래 묵힌 김치는 오래 묵게 한 김치’의 의미이므로 사동의 뜻이 들어있다. ③, ④, ⑤ ‘막다’, ‘맺다’, ‘달다’ 셋 다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이다.